

MARK SCHEME for the May/June 2009 question paper
for the guidance of teachers

0521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ximum raw mark 50

This mark scheme is published as an aid to teachers and candidates, to indicate the requirements of the examination. It shows the basis on which Examiners were instructed to award marks. It does not indicate the details of the discussions that took place at an Examiners' meeting before marking began, which would have considered the acceptability of alternative answers.

Mark schemes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question papers and the report on the examination.

- CIE will not enter into discussions or correspondence in connection with these mark schemes.

CIE is publishing the mark schemes for the May/June 2009 question papers for most IGCSE, GCE Advanced Level and Advanced Subsidiary Level syllabuses and some Ordinary Level syllabuses.

Page 2	Mark Scheme: Teachers' version	Syllabus	Paper
	IGCSE – May/June 2009	0521	01

1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after each question. In addition, 5 marks will be given for the general quality of the language (see: syllabus) in the answers. Total number of marks = 20 + 5 = 25)

- (a) 직위를 부여 받고서 그 권력을 뽐내며 휘둘렀다는 뜻. [1]
- (b) 각자의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는 국군이 이기기를, 친할머니는 북한군이 이기기를 각각 바라기에, 서로입장이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2]
- (c) 외할머니가 비와 번개를 바라보며 북한군의 전멸을 기원하는 저주의 말을 퍼부음으로써 북한군을 따라 도망간 삼촌을 걱정하고 있는 친할머니의 화를 돋구었다. [1]
[1]
- (d) 국군으로 입대한 외삼촌이 북한군과의 전투 중에 죽었다는 전사통지서를 받고 외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북한군에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었다. [1]
- (e) 공산주의자 [1]
- (f) 악의를 그득 담은 얼굴이란 자신에게 화를 나게 만든 원인제공자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화난 얼굴을 의미한다. [1]
외할머니는 자신의 자식을 잃은 슬픔에 북한군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자식이 잡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에 화가 난 것이다. [1]
- (g) 전쟁 와중에 피난을 떠나 오갈 데 없게 된 것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자기 자식을 죽으라는 투의 저주를 하는 것. [1]
[1]
- (h) 전생애 많은 죄를 지은 탓에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죽게 한 후 그 죄값을 받는 것임에도 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1]
[1]
- (i) 북한군 점령 치하에서 감투를 쓰고 그 권력을 뽐내며 휘두르고 다니다 결국 북한군과 함께 도망치게 된 삼촌의 신세가 할머니가 잘 못 가르친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질책 [1]
- (j) 북한군 토벌대에 쫓기고 있는 삼촌이 잡혀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 [1]
- (k)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자꾸 자극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만 말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1]
- (l) 삼촌이 북한군을 따라 도망갔기에 주위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어도 집안의 가족들 끼리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그 금기를 외할머니가 깨고 빨갱이 집안임을 공식화 한 것 [1]
[1]
- (m) 구렁이를 자기 자식의 현신으로 보고 [1] 그 구렁이가 잘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식이 편안히 저승길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 [1]

Page 3	Mark Scheme: Teachers' version	Syllabus	Paper
	IGCSE – May/June 2009	0521	01

2 Up to 15 marks are available for the content of the answer, and up to 10 marks for the quality of writing (5 marks for Style and Organisation and 5 marks for Accuracy of Language)

(a) 공통점:

- 등장인물들이 6.25전쟁으로 인하여 갈등/대립을 겪는다. [1]
- 장마에서는 두 할머니의 아들들이 반대편 군에 입대하여 서로 입장이 반대되어 대립하고 [1], 학에서는 성삼이 남한군의 치안대원이 되고, 덕재가 북한군의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되면서 어릴적 친구가 반대편에서 대립한다 [1].
- 두 할머니들과 성삼, 덕재는 이데올로기에 관계 없이 전쟁에 휘말려 갈등과 아픔을 겪는다. [1]
- 서로의 불화를 극복하고 화해하며 옛날의 관계로 돌아간다. [1]
- 할머니와 성삼은 상대방에 비해 우위적 입지에 있다. [1]

다른점:

-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간접적으로 전쟁에 관련되어 있으나, 성삼과 덕재는 직접 전쟁에 관련되어 있다. [1]
- 장마에서는 가족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만, 학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 [1]

(b) 장마: 두 할머니의 갈등은 각각 자식을 대립된 군대에 보내놓고 자식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혹은 상대방이 패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그 원인이 된다. [1] 이 갈등은 국군으로 입대한 외삼촌의 전사통지서가 도착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외할머니에 의해 발전되어지고[1], 인민군에 대한 저주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저주로 받아들이는 친할머니와의 충돌 속에서 외할머니가 ‘빨갱이’라는 금기의 단어를 거론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1]

학: 어릴 때 친구이던 성삼이와 덕재가 7년 만에 만났으나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다. [1] 이러한 갈등은 성삼이가 덕재의 호송인을 자청하여 고개를 넘으면서 심화된다. [1] 결국 고개를 넘으면서 성삼이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던 친구 덕재가 그 동안 몇 명이나 희생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속셈으로 피난도 가지 않고 숨어있었는지 의심하면서 갈등의 최고조에 도달한다. [1]

(c) 장마: 집으로 기어든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삼촌이 죽었음을 직감한 후 기절한다.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이 돌아온 듯 대접하여 보내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화해를 청한다.[1]

학: 성삼은 덕재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를 바 없이 농부로 살다 전쟁에 휩쓸린 것을 깨닫는다. [1] 학 때를 만나 학 사냥을 제안하면서 성삼이는 덕재를 풀어준다. [1]